

# 순천·여수·광양시 거리두기 완화

1단계 + α → 1단계 2주 연장  
사적 모임 4명서 6명까지로  
300명 미만 모임·행사 가능



임채영 순천시 부시장(왼쪽)이 지난 30일 코로나19 거리두기 개편안을 발표하고 있다. <순천시 제공>

전국적으로 다양한 경로의 산발적, 소규모 코로나19가 감염이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전남 동부권 3개 시가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1단계를 기존(1단계 + α)보다 다소 완화해 2주간 연장 시행하기로 했다.

순천시와 여수시, 광양시는 최근 확진자 발생 추이와 서민 경제 등을 고려해 지난 31일부터 오는 6월13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1단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임채영 순천시 부시장은 영상브리핑을 통해 "거리 두기를 1단계로 완화한 지난 1주일간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큰 위기 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해 내면서 어느 정도 진정세에 접어들었다고 판단한다"며 "31일부터 6월 13일까지 개편된 사회적 거리 두기 1단계를 2주간 연장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사적 모임은 기존 4인에서 6인까지 가능하도록 했고 300명 미만의 모임·행사는 방역 수칙을 준수하면서 실시 가능하다.

감염 위험이 높은 유흥시설, 홀덤펍, 무도장, 노래연습장(코인노래연습장 포함) 등은 오전 0시부터 5시까지 운영이 중단되고, 4명까지 모임이 가

능하다.  
또 해당 업종 영업주 및 종사자(코인노래연습장 제외)는 주 1회 진단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식당·카페는 2인 이상이 커피·음료류,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 매장 내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으로 강력히 권고했고, 종교활동은 정규예배 등 좌석 수의 30% 이내로 인원이 제한되며 종교활동 주관의 모임과 식사는 전면 금지된다.  
앞서 3개 시는 지난 24일부터 4인까지만 사적모

임을 허용하는 거리두기 개편안 '1단계 + α'를 적용해왔다.  
방역 당국 관계자는 "현재 다양한 경로의 산발적, 소규모 감염이 발생하고 있어 아직 안심할 단계가 아닌만큼 시민들의 자발적인 방역수칙 협조가 매우 중요하다"며 "예방접종이 본격화됨에 따라 백신 접종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 구례 사성암 명승지 보존지역 100m로 축소

구례 사성암 명승지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이 당초 500m에서 100m로 축소된다.  
지난 31일 구례군 등에 따르면 문화재청은 군민들의 문화재명승지 지정 해제 요구와 관련, 군민의 의견을 받아 들어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을 축소 조정(광주일보 5월20일자 15면 보도)해 당초면적 248만평㎡에서 약 12만8000㎡로 줄이기로 결정했다.

문화재청은 최근 구례군민의 의견이 반영된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조정안을 문화재위원회에서 심의해 이 같이 결정한 알려졌다. 처음면적의 6%에 해당한다.  
이에 대해 김영민 사성암명승지해제추진위원장(구례군지역발전혁신위원장)은 "해제가 되지 않아 다소 미흡하지만 군민들의 의견이 많이 반영되어 다행스럽다"고 말했다. /구례=이진택 기자 lit@

## 광양시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신청기한 연장

광양시가 소상공인의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맞춤형 지원금인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의 신청기한을 오는 6월3일까지 연장한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과 집합금지 행정명령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었던 소상공인을 위해 정부에서 지급하는 4차 재난지원금이다.  
지원대상은 2021년 2월28일 이전 창업자로 집합금지, 영업제한, 경영위기, 일반업종으로 분류된다. 집합금지 업종은 500만원, 영업제한 업종은 300만원, 경영위기 업종은 200~300만원, 일반업

종은 100만원을 지원한다.  
광양시의 집합금지 업종은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홀덤펍이며, 영업제한 업종은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직접판매홍보관, 학원·교습소, 숙박시설이다.  
지원금 신청은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홈페이지(https://버팀목자금플러스.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해야 한다.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업종은 광양시청 지역경제과를 방문해 행정명령 이행확인서를 발급받아 첨부해 신청하면 된다.  
/광양=김대성 기자 kds@kwangju.co.kr



K-water 영·섬유역본부 주암댐지사 관계자들이 에코솔루션 협동조합과 함께 지난 28일 주암댐 상류 화순군 사평면 일원에서 하천쓰레기 자율관리 작업을 펼쳤다. <K-water 영·섬유역본부 주암댐지사 제공>

## K-water 주암댐 쓰레기 자율관리 사업 착수

에코솔루션 협동조합과 협약

K-water 영·섬유역본부 주암댐지사(지사장 박병국)와 에코솔루션 협동조합(이사장 조병철)이 지난 28일 주암댐 상류인 화순군 사평면 일원을 시작으로 환경부 하천쓰레기 자율관리사업에 본격 착수했다.  
K-water는 환경부 주관으로 시행하는 하천쓰레기 정화사업 예산을 지원받아 '하천쓰레기 주민 자율관리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주암댐 상류 지역 사업 추진을 위해 지난 4월 주민참여 에코솔루션 협동조합을 설립하였고, 5월에는 K-water와 협동조합이 사업 위수탁 협약을 체결했다.  
주암댐 상류지역인 순천시, 보성군, 화순군을 대상으로 영산강유역환경청 환경지킴이 및 지자체와 합동 오염원 점검 시 불법투기 쓰레기, 방치

폐목 등이 발견된 하천 구역의 정화작업에 댐 주변 지역주민이 직접 참여하게 된다. 쓰레기 수거작업 외에도 마을하천 대형결운동, 환경보호 캠페인 등 환경개선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이 사업으로 상류지역은 일자리 창출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되고 하류지역은 쓰레기 사전 수거를 통한 깨끗한 하천 수질을 보장받을 수 있어 사회적 가치가 클 것으로 기대되며, 환경부는 올해 사업 성과를 바탕으로 내년부터는 전국으로 사업을 확대할 예정이다.  
양진식 K-water 영·섬유역본부장은 "이 사업으로 댐 주변 지역주민과 협업해 깨끗한 하천과 상수원을 보존하고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나실있는 사업을 추진해 청정한 주암댐을 만들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순천=김은종 기자 ejkim@

## 여수시, 노후 상수도관 현대화... 2024년까지 766억 투입

수질 개선·유수율 제고 56km 교체  
누수 탐사 감시 블록시스템 정비

여수시가 안전한 수돗물 공급과 상수도 유수율을 85%까지 향상시키기 위해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있다.

여수시에 따르면 시는 환경부가 주관하는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은 지난해부터 오는 2024년까지 5년 동안 국비 383억원과 지방비 383억원, 등 총사업비 766억원을 들여 추진한다.

시는 이 사업으로 노후화된 상수도관 56km를 교

체하고 193km에 이르는 상수도관의 누수를 탐사하고 정비한다. 특히 상수도 관망을 실시간으로 감시할 수 있는 블록시스템을 정비하는 한편 상수도 유지관리시스템도 구축한다. 상수도 관로의 현대적 관망 운영 시스템 구성과 재정비로 수돗물 공급에서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한 인프라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과 설계 감리를 위한 건설사업관리 용역을 추진 중이며, 블록구축을 위한 기초자료 수집과 배수지, 펌프 등 시설물 현장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블록 간 미확인된 연결 관로 유무 등의 확인을 위해 필수적인 블록별

고립은 단수가 꼭 필요한 사항으로, 시는 주민들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야간시간대 단수를 실시하고 마을방송 및 SNS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본격적인 사업 착공은 현장조사와 관망 분석을 통해 체계적인 노후 관로 교체계획 수립이 완료되는 내년 하반기에 환경부 사전기술검토 절차 이행 후 시작할 전망이다.

여수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수돗물 수질 개선과 유수율 제고로 수돗물의 원가를 절감함으로써 수도요금 인상 요인을 줄이고 경영 성과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여수=김창화 기자 chkim@kwangju.co.kr

## 순천시 생활쓰레기 20% 줄이기 나섰다 시민 참여 유도 대대적 홍보

순천시가 '생활쓰레기 20% 줄이기' 운동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순천시는 생활쓰레기 줄이기 시민운동과 관련 생활쓰레기를 매년 2%씩 감량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대대적인 홍보에 나섰다.

시는 홍보 전단을 제작해 생활쓰레기 배출 시간(일몰 후-다음날 오전 3시), 배출 장소, 성상별 배출 방법, 폐가전 무상 방문 수거에 대해 안내하고 쓰레기 올바르게 배출하기, NO 플라스틱 운동,

내 집 내 상가 앞 청소하기 등 시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참여 방법을 안내하고 있다.

또 순천시 자체적으로 매월 25일을 '쓰레기 줄이기 시민다짐의 날'로 지정해 '우리 마을과 상가, 시장은 우리 스스로 깨끗이' 청소하고 SNS를 통해 인증하는 이벤트도 추진한다.

시는 홍보 전단을 순천시 모든 세대와 상가 등에 배부하고 온라인·SNS 등 다양한 매

체를 통해 홍보, 시민 참여를 확산시킬 예정이다.

순천시는 배출 뿐만 아니라, 발생 단계에서 쓰레기 감량을 위해 공공기관 종량제 봉투 배출실명제, 생활쓰레기 줄이기 실천수기 및 아이디어 공모전, RFID 기반 음식물류폐기물 계량기 확대 설치, NO 플라스틱 운동 등 다양한 정책을 도입해 생활쓰레기 감소에 주력하고 있다.

/순천=김은종 기자 ejkim@kwangju.co.kr

# 이제는 내일에 투자합니다!

**최소금액 500만원 투자로  
안정적인 재테크**

**내일을 위한 보험! 안정적인 고수익 투자!  
투자만으로 수목장 자연장지를 선분양**

**은행이자**

갈수록 떨어지는 금리  
이제는 마이너스 금리시대  
평균 31~51만원

**부동산 투자**

수요와 공급의 역전  
텅텅 비어버린 부동산들  
평균 30~50만원  
(임대되었을시)

**친환경장묘문화(주)투자**

안전성 보장  
실제 운영하는 수목장의  
장원장지를 분양도 받고  
수익까지 창출하는  
미래형 재테크

**친환경장묘문화(주) ☎ 062) 412-2800**